

“전곡 작사·작곡…‘프듀’ 후광 지우려 목숨 걸고 작업했죠”

〈프로듀스101〉

미니앨범 ‘더블유, 히어’ 발표
4인조 유닛으로 역주행 질주

뉴이스트W

수많은 그룹 가운데 하나로 조용히 묻히는가 싶더니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것도 수직으로 급상승해 가요계 정상권에 올랐다. 생존을 걱정하던 이들은 그렇게 기사화생했다. 10일 미니앨범 ‘더블유, 히어’를 발표한 뉴이스트W의 이야기다. 뉴이스트W는 2012년 데뷔한 5인조 뉴이스트(황민현·JR·백호·렌·아론)가 황민현을 제외한 4인조로 팀을 재정비해 활동하는 유닛 그룹이다. 황민현은 프로젝트그룹 워너원으로 내년 말까지 활동하기로 되어 있어, 그때까지 네 명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름 뒤에 붙인 W라는 단어도 황민현을 기다린다는 뜻의 ‘Wait’에서 첫 글자를 따왔다.

워너원 황민현 빠진 4인조로 활동
프듀서 얼굴 알리고 5년만에 꽃길

“거리에 흘러나오는 우리 노래 뿌듯
다섯이 다시 뭉치는 그날까지 GO!”



뉴이스트W의 이번 새 앨범 ‘더블유, 히어’ 선주문량은 20만 장이다. 앨범 ‘프로듀스101’ 출연 직전이던 2016년 8월 발표한 미니앨범 ‘캔버스’의 첫 주 판매량이 600장이었던 점에 비하면 그야말로 비약적 성장이다. 왼쪽부터 백호, 렌, JR, 아론.



뉴이스트W의 새 미니앨범 ‘더블유, 히어’ 쇼케이스 장면.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뉴이스트W가 데뷔 5년 만에 무명에서 벗어나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으로 들어온 것은 황민현을 포함해 JR, 백호, 렌 등 네 멤버가 6월 끝난 앨범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이스트 멤버들의 매력이 알려졌고, 데뷔 초기에 발표한 곡이 뒤늦게 음원차트 정상권에 오르는 ‘역주행’ 현상을 만들어냈다. 7월 발표한 싱글 ‘있다면’은 각종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들을 두고 ‘인생역전’이라 부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그냥 보낼 순 없다. 데뷔 후 처음으로 관심과 인기라는 것을 맛본 이들은 새 앨범 ‘더블유, 히어’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10일 쇼케이스 현장에서 만난 멤버들 얼굴에는 긴장한 듯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이 그대로 묻어났다.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우리 보다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주셔서 더 큰 행복이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좋아하는 분들께 감

사한 마음이 정말 크고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앨범도 그분들께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작업했다.”

한 번 돌아오면 인기는 쉽게 찾아들 줄 모른다. 역시나 이번에도 ‘꽃길’이 펼쳐지고 있다. 타이틀곡 ‘웨어 유 앳’을 포함해 수록곡 6곡 전부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예전에는 앨범을 발표해도 길에서 우리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리에서 우리 노래가 많이 들려서 굉장히 뿌듯했다. 하하!”

멤버 가운데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하지 않은 아론(곽영민)도 활말이 많다. 아론은 당시 부상으로 출연하지 못했다. 비록 멤버들에 비해 관심과 주목도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뉴이스트라는 그룹을 다시 알리게 된 사실에 만족했다.

“멤버들이 나오는 방송이라 엄청 열심히 방송을 모니터링했다. 볼 때마다 정말 잘하기에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큰 관심을 받게 돼 멤버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그동안 발표한 여느 앨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멤버들은 “목숨 걸고 만들었다”고 말할 만큼 이번 앨범에 유독 더 정성을 쏟았다. 관심이 집중된 만큼 ‘프로듀스101’ 후광으로 인기를 얻는다는 시선에 간힐 수 없어서다. 그렇기에 멤버들 모두 6곡의 수록곡에 작사와 작곡, 프로듀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백호(강동호)는 앨범 전체 프로듀싱과 타이틀곡을 작곡했다. 가사는 JR(김종현)과 함께 썼다. 렌(최민기)은 ‘파라다이스’, 아론은 ‘굿 러브’, JR은 ‘위드’ 등 솔로곡을 각각 작곡했다.

“멤버들 개개인의 매력을 뚜렷이 보여드리고 네 명이 함께 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 같았다. 타이틀곡을 고향인 제주도에서 썼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업이 잘 되더라.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설 때 쉬고, 행복한 상태에서 작업해 만족한다. 멤버들 반응도 좋아서 마음에 든다. 꼭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를 해보고 싶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후회 남지 않게 열심히 하면 후련할 것 같긴 해도 꼭 1위는 해보고 싶다. 하하!”(백호)

일종의 도전이자 1위 공약도 생각했다. 아직까지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를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기에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멤버별로 정해진 파트를 바꿔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이다. 나름 멤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이벤트다. 팬들에게도 재밌는 볼거리를 안겨줄 거라 생각했다.

내년 말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멤버 황민현에 대한 애뜻함도 전했다. 곡을 만들어 가장 먼저 들려주고 반응을 살폈다.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 다시 뭉치는 그날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자고 약속했다. 최선을 다한 후 좋은 모습으로 만나면 기쁨은 더 커지지 않겠나. 황민현 뿐만 아니라 ‘프로듀스 101’에 출연 후 다시 데뷔하는 친구들까지 모두 잘 됐으면 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이상민·장희진, 새 예능 ‘살미도’ 진행



이상민

방송인 이상민과 연기자 장희진이 SBS 새 예능프로그램 ‘살미도 미쳐도 좋아’(살미도) 진행자로 나선다. ‘살미도’는 스타가 취미나 관심 있는 분야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관찰예능프로그램으로 현재 방송중인 ‘박진영의 파티파플’ 후속으로 10월 28일 첫 방송된다. 이상민은 이번 새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다시 한번 ‘방송가 블루칩’임을 증명하게 됐으며, 장희진은 처음으로 예능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선다. 장희진은 7월 출연한 MBC ‘라디오스타’에서 의외의 털털한 모습을 보여 제작진의 호감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살미도’까지 예능 라인업에 추가하며 막강한 관찰예능프로그램 화력을 자랑하게 됐다. ‘미운 우리 새끼’를 비롯해 ‘불타는 청춘’과 ‘백년송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싱글와이프’로 일주일을 채운다.

방탄소년단, 3주 연속 빌보드 핫100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3주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과 빌보드 200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다. 11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신곡 ‘DNA’는 핫100에서 87위, ‘러브 유 어셀프 승-하’ 앨범은 빌보드200에서 35위를 차지했다. 핫100은 싱글 차트이고, 빌보드200은 앨범차트다. 한국에 앨범으로 빌보드 2개의 메인차트에서 3주 연속 나란히 통탄하는 것은 미국 내 팬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지속해서 듣고 있다는 증거로,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위상을 여실히 증명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아티스트100 차트 24위, 캐나다인 앨범 차트 33위, 캐나다인 핫 100 차트 59위, ‘월드앨범’ 차트는 1위를 기록했다.

JYJ 김준수 모친 윤서정 씨 가수 데뷔



김준수(왼쪽)와 윤서정 씨

JYJ 김준수의 어머니 윤서정 씨가 가수로 데뷔했다. 윤서정 씨는 11일 싱글 ‘나의 이야기’를 발표했다. ‘나의 이야기’는 ‘스위트 메모리즈’ ‘카테일 사랑’ ‘바람’ 등 3곡의 리메이크 곡으로 이뤄졌다. 타이틀곡인 ‘스위트 메모리즈’는 일본의 유명가수 마츠다 세이코가 부른 동명의 노래를 번안했다. 부드러운 미디엄 템포의 멜로디가 돋보인다. ‘카테일 사랑’은 90년대 혼성 프로젝트그룹 마로니에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아들인 김준수가 듀엣으로 함께 노래했다. 김준수는 입대 전 녹음에 참여했다. ‘바람’은 가수 노사연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했다. 인생을 돌아보는 가사와 성숙한 창법이 어우러지는 곡이다. 음반수익금 전액은 기부될 예정이다.

이태임, ‘리어왕’으로 첫 연극 도전



이태임

연기자 이태임이 데뷔하고 처음 연극무대에 오른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인 희곡 ‘리어왕’에 출연하는 이태임은 11월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무대에 오른다. 최근 드라마 ‘폼위 있는 그녀’를 통해 연기자로 재평가 받은 이태임은 이번 연극 도전을 계기로 배우로 실력을 다지는 기회를 갖겠다는 각오다. ‘리어왕’은 ‘맥베스’, ‘햄릿’, ‘오셀로’와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줄거리와는 물론 대사와 캐릭터, 의상, 소품까지 원작이 충실한 버전으로 꾸며진다. 이태임은 극중 리어의 둘째 딸 리진 역을 맡고, 주인공 리어 역에 캐스팅된 배우 안석환 손병호와 호흡을 맞춘다. 이태임은 “언젠가 배우로서 무대에 꼭 서보고 싶었다. 베테랑 선배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세창·배기성·MC한새, 11월 결혼



이세창

배우 이세창과 가수 배기성, MC 한새가 11월 나란히 결혼식을 올린다. 이세창(47)은 아크로바틱 배우 정하나(34)와 11월5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올린다. 가족과 친지만 초대할 가운데 열리는 이날 결혼식은 두 사람이 기획한 공연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가수 배기성(45)도 11월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12세 연하의 신부와 결혼식을 올린다. 앞서 배기성은 8월 KBS 2TV ‘전설을 노래하다-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11월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다. 래퍼 MC한새(윤성훈·41)는 11월 11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예식장에서 9세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예비신부는 IT업계 종사자로, 두 사람은 3년간 교제 끝에 결혼의 결실을 맺게 됐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